

## Q : 과학동아를 4행시로 소개한다면?

과학으로 독자와 만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습니다. 1986년 1월호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학생이었던 10대 독자가 학부모가 된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기초 연구부터 첨단 기술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학 이슈를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한 권에 담아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떨리고,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를 끝까지 추적하고 싶고, 가벼운 듯 묵직한 과학 지식이 주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과학동아가 답입니다. 과학동아의 지나온 35년에 새로운 DNA를 입힐 멋진 멤버를 기다립니다.



편집장

## Q : 과학동아 기자의 삶이란?

2019 노벨상 수상자를 직접 만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코로나19 진단법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발표 대회인 '페임랩'에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예선에서 푹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봐도 놀라울 정도로 바쁘고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며 과학기자로써 1년을 보냈습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뛰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기자가 됐다는 생각에 모든 취재가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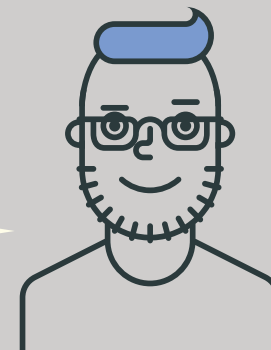
하지만 과학동아 기자의 삶은 취재 후에 진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감 기간에는 며칠씩 야근을 하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없이 글을 고쳐야 했고, 디자이너와 함께 기사의 사진과 디자인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기사의 주인공이 되거나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며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진정한 과학동아 기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자

## Q : 데일리뉴스팀의 자랑/지향할 점은 무엇인가요?”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팀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과학기술과 환경, 의학 소식을 온라인과 동아일보를 통해 매일 보도합니다. 데일리뉴스팀 기자들은 과학, 기술, 환경, 의학 등 과학의 전통 영역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현장을 찾아가고 정책과 사건 사고를 취재해 당일 독자에게 생생히 전달합니다. 동아사이언스의 뉴스는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편집장

## Q : 매일매일 기사를 쓰는 기자의 하루는?

매일같이 과학계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고, 과학계의 최신 연구들에 대해서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과학을 배울 뿐 아니라 과학이 어디에 쓰이는지, 실생활에서 필요한 과학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도 장점입니다. 그것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장 최전선에서, 매일매일(월화수목금토일?).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현한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 완벽한 사실은 아직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정보가 사실인지,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이 설명해줘야 할 일들이,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과학기자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계의 최전선에서 우리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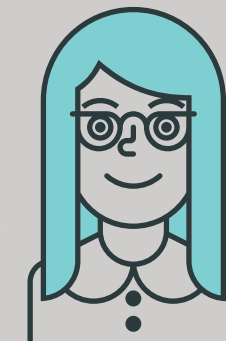


기자

## Q : 수학동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매체인지?(궁금궁금)

수학동아는 국내 유일의 수학 매체입니다. 우선 수학의 재미를 찾는 청소년에게 최신 수학 연구와 실생활 속 수학 사례, 퍼즐과 국내 최고 수학자가 낸 문제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폴리매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수학 문제를 내고 함께 푸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학 매체는 사실 해외에서도 찾기 힘듭니다.(뿌듯뿌듯!) 새로운 수학 문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지금 수학동아 기자에 도전하세요!

**영상 : 세상에 없던 문제, 함께 푸는 폴리매스데이 | <https://youtu.be/atr6fymRP0Y>**



편집장

## Q : 수학동아 기자는 수학 능력자?

‘수학 논문도 술술 읽을 정도의 수학 능력자에 필적은 작가 뽑히는 기자’. 사실 저도 처음엔 수학동아 기사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약 9개월 정도 수학동아팀 막내로 지내며 깨달은 것은 수학 기자에게는 ‘나의 기사를 더 읽고 싶게 만드는 기획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많이 알고 글만 잘 쓰면 될 줄 알았는데, 큰 오산이었던 거죠. 특히 수학은 수식 외에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방법이 한계가 있어서 내 기사를 더 잘 이해시키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수학 기사의 중심에는 독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쓰고 기획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국내 유일한 수학 잡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자긍심과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천재 수학자 테렌스 타오가 수학 난제인 콜라츠 추측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 연구를 소개했던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운 수학 내용이 가득했는데, 취재원과 논문을 한 줄씩 같이 읽고 제가 다시 설명하기를 5시간 동안 반복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렌스 타오의 연구를 담은 기사를 내거 썼다는 점이 정말 뿌듯했고, 그제야 국내 유일한 수학 잡지에서 기사를 쓰는 수학 기자라는 사실이 실감 났습니다.



기자

## Q : 초절정 인기 매체인 어린이과학동아에 딱 맞는 사람은?

따뜻한 시각과 논리력을 지닌 기자, 어린이과학동아로 모여라!

안녕하세요, 어린이과학동아 편집장 김정입니다. 제가 편집장이 되면서 생긴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과학 지식 몇 개 더 알려주는 잡지 말고, 독자에게 과학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주고, 과학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래세대를 성장시키는 매체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과학동아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사와 만화는 물론, 기자단, 지구사랑탐사대, 플라스틱 다이어트 프로젝트, 안심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기사와 이를 확장시키는 다양한 경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구와 생명,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과학을 이해하는 **논리력**을 지닌 기사를 기다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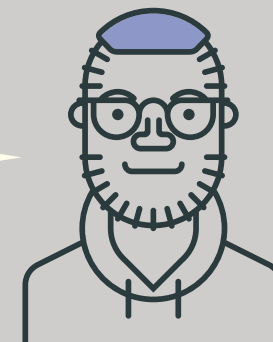


편집장

## Q : 어린이를 위한 과학기사는 쓰기가 쉽다?

어린이를 위한 과학 기사라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기사를 읽어보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묻고 또 물으며 훨씬 많은 공부와 노력을 들여야 하거든요.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그것이 <어린이과학동아> 기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악어부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질량을 재는 저울, 거대 블랙홀까지, 어린이과학동아 기자는 우주를 넘나드는 어린이들의 끝없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작가들과 함께 과학 만화를 만들고, 연구자와 독자들과 방방곡곡으로 탐사를 떠나는 건 덤이지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낸 당신이라면, <어린이과학동아>가 최고의 매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기쁨을 선물해 보세요!



기자